

지역 매 아 리

공덕면 지역발전협의회

인재양성 장학금 1백만원 기탁

공덕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김경성)에서는 지난 28일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김제 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장학금은 회원들의 정성과 소중한 뜻을 모아 십시일반 회비를 모금하여 기탁하게 되었다.

공덕면 지역발전협의회는 매년 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경성 지역발전협의회장은 "오늘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면서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김제시 인재양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김경성 지역발전협의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김제시 인재양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미래의 김제를 만들어 갈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 또한 김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문화가정 송년의 밤 행사 성료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우근)는 지난 28일 다문화가정을 위한 '러브인교월동' 연말행사를 행정복지센터(2층)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송년의 밤 행사로 치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여 음식을 나누고 노래 자랑 및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게임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기동대원들과 어우러져 행사가 진행되면서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이었고 다문화가족의 가족대항 장기자랑과 탈밭대항은 어린이들까지도 열정적으로 참석하여 보는 이들을 가슴뭉듯하게 했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금번 러브인교월동 행사는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되었다"며 "많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기업상생 협력 우수

BGF리테일로부터 기업상생 감사패 받아 김제 신동진미 CU편의점 간편식 품질향상 기여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8일 김제시청 시장실에서 BGF리테일(대표 박재구)로부터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한 기업상생 협력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한 김제시와 BGF리테일간 기업상생 협력에 대한 감사패로 김제시와 BGF리테일은 지난 3월, 제20회 김

제지평선축제 홍보 마케팅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 지자체·기업 연계로 벽골제 행사장에 유색비 팜아트를 조성,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대동 연날리기를 공동 운영한 바 있다.

BGF리테일은 국내 최대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업체로, CU편의점 CU(씨유)는 100% 신동진미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도시락 생산량 40만 개 중 85%가 김제 신동진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하루 도시락 생산량 40만 개 중 85%가 김제 신동진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올 8월 '팔도진미 전라한상' 도시락 출시에 맞춰 전국 약 12,800여개의 CU편의점 내 간편식 가판대에 김제지평선축제와 벽골제 팜아트 홍보물을 부착하여 적극적인 축제 홍보로 제20회 지평선축제의 성공을 이끌었다.

또한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주5회 '사랑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지자체 기업간 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김제시와 BGF리테일의 상생협력은 지난 7월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에서 주최하는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 '축제&기업 상생부문' 수상과 지난 9월 매일경제가 주최한 대한민국 축제대상 '상생협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결과로도 드러난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박준배 김제시장은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BGF리테일 덕분이다. 2019년에는 BGF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28일 김제시청 시장실에서 BGF리테일로부터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한 기업상생 협력 감사패를 받았다.



김제시는 지난 28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2018년 시정발전유공 시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제시 시정발전유공 표창 수여식

알찬지역아동센터 김현희씨 등 시민 98명 선정

김제시는 지난 28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올 한해 시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각계 분야 유공시민 및 축하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시정발전유공 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회화와 일선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한 모범 이·통장(36명)과 지역사회 발전 유공시민(37명),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발전 유공시민(8명), 사회복지 발전 유공시민(10명), 지적청량업무 유공 등 (7명)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해 온 시민 98명이 주인공이 됐다.

관 표창 선정 및 전라북도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에 적극 참여한 김태규(김제문화원)씨, 주택·건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송수용(상우산업개발)씨를 비롯한 6명이 도지사 표창에 선정되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인사말에서 "한결같은 열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해 주신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시민분들의 열정적인 노고 덕분에 '정의로 경제도약하는 김제 시민의 시대'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김현희(김제시 알찬지역아동센터)씨는 보건복지부장

완주군, 내년부터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내의·수면조끼 등 10만원 상당 ... 장려금 기준 완화

완주군이 내년부터 관내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출산축하용품으로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기준도 완화해 지원을 강화한다.

완주군은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부모에게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내년부터 새롭게 축하선물로 육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출산축하선물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되며,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임신부에게 지원된다.

출산축하용품은 '행복해', '사랑해' 두 가지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행복해 세트에는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체온계, 손톱가위세트가 사랑해 세트는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딸랑이 세트, 치아발육기가 구성돼 있다.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혹은 보건소에서 곧바로 수령가능하고, 지

접수령이 어려운 경우 방문배송도 가능하다. 또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완주군에 장기 거주한 가정을 위한 출산장려금 기준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부모 모두가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만 출산장려금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부모 중 1명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군비)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출산축하선물을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임신부에게 지원된다.

완주군, 올해 도서 대출 1위 '언어천재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

올 한해 완주군민들이 가장 사랑한 도서는 <언어천재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김영사)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 역시 인문학의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8일 완주군은 중앙도서관을 포함해 삼례도서관, 둔산영어도서관, 고산도서관 등의 2018년도 도서 대출 실적을 분석해 공개했다.

1위 도서의 저자 조승연은 TvN <비밀독서단>, MBC <라디오스타> 등의 출연으로 얼굴을 알렸고, 5개 국어에 능통해 언어천재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언어천재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수천년간 이어져온 인간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


2위와 3위는 최근의 사회현상을 반영했다. 2위는 신길자의 <뽀빠이 자기

소개서>(서울문화사), 3위는 서경인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 못한다>(배가북스)였다. 취업난과 경제난에 시달리는 현재의 사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4위는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의 <주 기자의 사법활극>이 5위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용의자 X의 현신> 등의 저서로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작가 중 한명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연애의 행방>의 꼽혔다. 그 뒤로 이빈의 <안녕 자두야>(화산문화사), 트롤의 <추리천재 영당이 탐정5(미래엔 아이세움)>, 윤슬의 <황제의 외동딸>(디앤씨미디어), 주호민의 <신과 함께>(애니박스), 썸튼의 <스페셜솔져 코믹스4(썸튼)로 나타났다.

최다대출 순위 10위 권 중 어린이 도서는 3권이었으며, 완주군 중앙도서관 1곳의 이용객만 13만 여명에 달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